

한국의 주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일본침례교연맹은 여러분의 신앙과 그 업적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행하신 크신 역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또 이 기회에 한국 민족에게 범한 우리의 죄를 인정하여 용서받기를 원하며, 여러분들과의 진정한 교제가 확립되어 서로 협력하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옛부터 교류가 있었으며 많은 변천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양국의 관계에 대해 귀국의 어느 역사가는 중국의 고사성어를 인용하여 "발을 밟는 사람과 밟히는 사람" 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백년은 밟는 것과 밟히는 것의 1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말에 우리는 심히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부터 시작된 36년간의 식민지로서의 지배는 귀국민 다수의 목숨을 빼앗는 지위 버릴 수 없는 고뇌와 상처를 귀국에 안겨 주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에서 볼 수 있는 일본 정부의 가혹한 강압정책은, 예를 들면, 제암리교회의 학살사건을 일으키게 되었고, 또 관동 대지진이 있었을 때 귀국민을 학살한 일 그리고 천황의 뜻에 따른 동화정책은 귀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으며, 생명과 재산을 차례로 유린하였습니다.

조선신궁을 시작으로 귀국의 각지에 세워진 신사예의 강제참배, 한국어의 사용금지, 창씨개명, 노동력으로서의 일본 국내로의 강제연행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우리의 폭거는 대단히 깊은 상처를 귀국에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일본교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가운데 동화정책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하려 했던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도 않고 도리어 탐욕에 협력했던 우리의 과거 역사를 심히 부끄럽게 느끼는 바입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라 거침직한 시대의 일점의 종지부가 찍혔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귀국에 대한 경제적인 침략과 매춘관광등에서 보여주는 일본인들의 교만이 귀국민들의 생활과 인권을 파손하고 많은 고통을 가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70만명이 넘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여러가지 차별 또는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폭자의 문제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음이 귀국민에게 많은 괴로움이 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깊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검정" 문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정당화하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김대중씨 납치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을 방문 중인 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채로 정치적인 해결로 마무리하는 이 나라의 태도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마음으로부터 저희 나라와 국민의 각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국의 전두환대통령이 금번 한국의 국가원수로서는 한일교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바, 이번 일을 통해서 "과거를 일체 잊어 버리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맞이하자" 라는 소리를 듣지만, 우리는 진정한 이웃으로서의 우호친선 관계가 정치적인 절충에 의해서 되지않고 "밟은자"가 "밟힌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런 실수를 두번 다시 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로도 자기를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본침례교회도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보면 이웃인 여러분의 고통을 돌아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고통에 고통을 더하여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앞에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집요하게 반복되고 있는 "야스구니신사국영화"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 반대 운동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삼으려는 세력을 앓보기 힘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세력에 대해 단호히 맞서서 박해와 협박을 참고 견디어 내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를 배움과 함께, 우리는 다시 이웃나라의 발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와같은 힘의 대두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굳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공해나 차별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인간의 자기영화의 시도가 얼마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파멸로 인도한다는 것을 성경으로 부터 새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복음화가 얼마나 급선무인지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깊이 돌이켜 보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성경말씀에 견고히 서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진실한 기도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를 힘입어 복음선교에 매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한 이웃으로서 복음선교의 좋은 동반자로 또 세상의 "파수군"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은 소망과 기도하는 기쁨을 더 깊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귀국의 선교사업이 더욱 부흥되기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이 귀국과 일본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크게 높임을 받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984.8.24.

일본침례교연맹
제38차연차총회